

강령

-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062-529-1552) 마창 0551-48-6264 (FAX: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학교급식 후원 조례 제정 운동

연대모임 기자회견 예정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지난 10월에서 11월에 걸쳐 급식시설 설치비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서명운동의 결과, 민주당 김원웅 의원주도로 국회교육위원회에 102억원의 예산 책정을 추가요청 했으나 민자당의 날치기 통과로 12월 초 본회의에서 일괄

부결되었다.

이에 지난번 급식시설비 지원예산 촉구를 위해 활동했던 연대모임(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 여성단체 연합,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지회, 전국지방자치유관연구소협의회)과 이기우 인하대교수(법률교문), 지방자치단체시민참여 전국네트워크(가칭), 지방의회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제정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제정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학교급식시설, 설비비지원등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연대모임에서는 3월 9일 기자회견(장소:여성단체연합 회의실)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을 교섭하여 공동으로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방송 진단 공청회

“교육방송 이렇게 서야 한다”

교육방송의 진로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종로성당에서는 5개 단체(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참교육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시청자 연대회의)가 주관한 ‘교육방송 이렇게 서야 한다-교육방송의 앞날과 교육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현실에 대한 비디오 상영이 있었고, 교육방송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교육방송에 대한 모니터가 있었다.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 교육방송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로 장은숙(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 문화국장)씨 등의 보조발제가 있었다.

이날 보조발제에서는 다매체 다채널이라는 새로운 방송환경 속에서 교육방송에 대한 재검토는 교육방송의 위상정립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 받는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상업방송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는 교육을 다루는 교육방송의 바로서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 교육방송 진단 제1차 시민 공청회 -

교육방송은 상업프로그램이 범람하는 다채널시대에 공익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공영교육방송으로 서야 한다.

- | | |
|--------------|--------------------------|
| 주요
기
사 | 3면 교육방송 살리기 |
| | 4면 국립중앙도서관 찾아보기 |
| | 5면 제6차 교육과정 시행 |
| | 7면 미래의 유망직업 — 해외관광여행 기획자 |

●●●우리 아이들 교육, 도서출판 보리가 돕겠습니다●●●

▶살아 있는 교육 시리즈

첫아이 학교 보내기 주순중 지음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내는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1학년용 가르쳐 본 선생님이 이야기식으로 엮었다.

옛이야기 들려 주기 서정오 지음

아이들에게 어떤 옛이야기를 골라서 어떻게 들려 줘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다시 쓴 옛이야기 12마당이 실려 있다.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이오덕 지음

잘못된 글쓰기 지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글쓰기 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그마한 내 꿈 하나 윤구병 지음

철학 교수가 느낀 교육 문제들과 실험학교를 만들기 위해 작은 꿈을 가꾸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선생님 우리 연극해요 김용심 지음

선생님들이 왜 아이들과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지 학급을 꾸려가는데 연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호철 선생의 교실혁명 시리즈

살아 있는 글쓰기 이호철 지음

글쓰기 지도 방법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기글을 들어 상세히 풀이하고 있다.

재미있는 숙제, 신나는 아이들 이호철 지음

공부를 하면서 생각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숙제 37가지 사례가 생생한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살아 있는 그림 그리기 이호철 지음

화가들조차 놀라워하는 이호철 선생님 반 아이들의 그림 180여 편이 상세한 지도방법과 함께 실려 있다.

▶보리 어린이 시리즈

새롭기와 함께 일기 쓰기 이새롬 글, 이성인 엮음

일기를 쓰려고 해도 쓸 거리가 없다고 하는 아이나 도무지 일기를 쓸 엄두를 못 내는 아이들이 읽고 일기 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엮었다.

왜 나를 미워해 요시모토 유키오 지음, 김미혜·황시백 옮김

동무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동무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한 아이의 이야기다. 이 아이를 6년 동안 지켜본 선생님이 쓴 실제 체험담이다.

▶보리 아기그림책 시리즈

보리 아기그림책 세밀화 시리즈 1 도서출판 보리 기획·편집

어린이들을 위한 세밀화 그림책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감수성 발달을 돕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가을에 먹는 과일, 몸에 좋은 채소, 집에서 기르는 동물, 산에서 사는 동물로 4권이 구성되어 있고 벽그림 2장이 함께 들어 있다.

보리 아기그림책 세밀화 시리즈 2 도서출판 보리 기획·편집

우리가 먹는 곡식, 여름에 먹는 과일, 들뜬에 사는 곤충, 물가에 사는 동물로 4권이 구성되어 있고 벽그림 2장이 함께 들어 있다.

도서 출판 보리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12-2(2층) 전화 (02)323-2654, 5391 팩스 (02)324-0285

사설

‘교육과정 운영위’ 제대로 되어야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을 결정하여 실시되어왔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중앙집권적 교육체제는 다양해지고 다변화, 지방화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뿐이다. 또 하나,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수가 유례없이 많은 점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과목으로는 당연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암기학습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획일화된 학교교육에서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교육내용의 유동성과 적절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교육경험이 풍부하게 하자는 것이 개정의 취지이다. 이것이 소위 ‘제6차 교육과정’으로 작년 1년을 시험기간으로 하고 올해 국민학교 1,2학년 부터 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아무리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제6차 교육과정’ 역시 중앙에서 이미 결정되어 학교에 하달된 것에는 이전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만 시간의 운영에서 학교에 재량을 주었다는 것 뿐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역할도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부모가 확실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도 교육청 지침으로 되어있는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가 그것이다. 이 운영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학교장, 교감, 평교사가 중심이 되겠지만 이 운영위에 학부모들도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운영위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협의하는 것이다. 연간지도에서부터 시설과 자료의 활용 등 실제 교육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뒷받침해주는 학부모들의 고충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다. 불필요한 과제, 형식적인 준비물 등의 문제점은 몇년 동안 모든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불만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개선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학교교육이 얼마나 타성적이고 현실 불감증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절망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다. 또하나, 학습이 뒤떨어지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충도 단순히 개인지도나 학원과외보다는 학교교육으로 해결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단편적인 예를 가지고서도 학부모들이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풀 수 있는 교육문제들은 너무 많다. 학습지진아들은 어머니 자원봉사제도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현장경험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직장을 견학시키고, 명예교사로 일할 학부모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위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운영위가 제 기능을 하게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덧붙여 운영위에 참여하게 되는 학부모들의 대표성도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음에 기존의 자모회나 육성회의 활동성향에서 탈피한 보다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절실한 현실이다.

경기도 국민학교 주 5일 수업 27개 국교 시범 실시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국민학교 주5일 수업방침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 시범학교 27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부천 동곡국교를 지정 시범학교로, 26개 시·군교육청마다 1곳씩 지정해 단계별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들 시범학교에서는 1단계로 올 1학기중에 주5일은 교과수업을 실시하고 하루는 책가방 없이 등교해 체험, 탐구, 견학이나 교과와 관계없는 특

별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 2학기에는 2단계로 1단계와 같은 야외 현장학습이나 과외활동을 실시하면서 한달에 한차례는 아예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율 학습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내년까지 이런 단계별 주 5일 수업을 반복 운영한 뒤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보완작업을 거쳐 97년부터 도 내 모든 국교에서 주5일 수업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두밀분교생, 상색교로 등교 공판결과 후 법적 대응

두밀분교 학부모회의는 ‘94.2월’ 가평군 교육청의 폐교조처에 항의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일단 상색국교로 등교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두밀분교생 15명 전원은 현재 마을에서 약4Km 떨어진 상색국교에 스쿨 버스를 타고 통학중이다. 두밀분교폐교에 항의해 등교를 거부했던 당시(‘94.

3) 6학년, 신은정(12), 신재호(13) 두학생은 겨울방학 동안 상색국교에서 출석 일수를 채운 후 중학교로 진학했다. 한편 두밀 분교 학부모회의는 3월 14일로 연기된 선고공판후 대응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공판결과에 따라 법적대응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고입 영어 회화 중심 '96 선발고사, 듣기평가 강화

암기위주의 학습에서 탈피,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영어 듣기평가의 비중이 강화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문법과 독해중심의 중학교 영어교육을 회화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96학년도 선발고사부터 영어 듣기

평가 문항수를 8문항으로 확대, 생활 영어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집중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듣기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8%에서 33.3%로 늘어나게 되며, 상대적으로 문법과 독해문제는 줄어들게 되었다.

학부모 만평

이숙자



조은일 에세이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빵점엄마 조은일의 화려한 작가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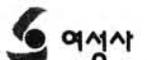
유머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한 아들 용걸이에 대한 아픔, 다섯 식구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는 끝자막한 문패, 무단결석한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이야기 등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조은일 씨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빵점엄마 백점일기’** 출간 이후 평범한 주부에서 자녀교육의 기수로, 참교육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유명작가(?)로 변화하면서 겪은 방송출연, 강연, 글쓰기, 사람 만나기 등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글로 옮겼다. 문학지나 일간지에 등단한 것이 아니라 주부다운 글쓰기로 세상에 알려진 조은일 씨의 작가경험은 주부들에게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신국판 / 200쪽
값 5,000원

부모를 돕는 책 시리즈

- 1 부모가 도와주는 행복한 그림그리기
아이의 그림으로 말한다
박금숙·이은순 지음
- 2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책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아버지가되려는사람들의모임 지음
- 3 외동아이가 잘 키우기
하나 키우기 둘보다 어렵더라
기순신·함희숙 지음
- 4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글쓰기
우리아이 글쓰기, 이렇게 도와주자
김명숙 지음
- 5 가족신문 만들기
우리집에서도 신문이 나와요
곽정란 지음

- 아이와 장난감
⑥ **놀면서 배워요**
분미옥 지음 <근간>
- 부모-자녀 관계
⑦ **자녀와 공감이 맞습니다**
이혜련·김성은·이기인 지음 <근간>
- 영어 적기 교육
⑧ **우리아이 영어공부, 이렇게 도와주자**
최진향 지음 <근간>



주소: (120-180) 서대문구 창천동 502-7 (2층)
전화: 324-1885 / 팩스: 336-1639

교육방송 최근 상황과 전망

교육방송이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연말 3일간의 파업을 통해 교육방송 직원들의 '교육방송 살리기' 노력은 피크를 그렸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교육부, 공보처)과 청와대 관계자까지 불러모아 대책수립을 지시했지만 정해진 1월말까지의 시한을 넘긴 지 한 달이 넘도록 그동안 달라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 공보처는 아직도 독립적인 교육방송공사를 설립, 운영할 '재원대책'이 없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제 우리 손은 떠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방송은 교육부 소관이며, 공보처는 이 나라 방송정책의 주무부처이다. 도대체 이 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정부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하물며 정책은 말해 무엇하랴. "교육방송이 진정한 국민

평생교육의 요람으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매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방송을 공사화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교육방송의 경영 및 편성에 대해 감독하고 그 운영은 교육방송 전문인들에게 맡겨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책임있게 일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가 위촉한 각종 연구위원회의 한결같은 최종건의들마저도 이젠 허망한 독백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변한 것이 있다. 바로 EBS 교육방송의 내부모습이다. 지치다 지쳐 의욕을 상실한 직원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교육방송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면서 허탈감에 빠져 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작년의 사정이다.

신바람이 없는 방송현장에서 시청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기없고 무성의한 프로그램 뿐이다. 혹자는 이렇게 질타할 것이다.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방송을 떠나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중차대한 교육방송 업무를 맡겨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그만 두라고 해라." 지당한 말씀이다. 그렇지만 세상 일이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별반 없다. 당장 그만 두라는 얘기는 교육방송처럼 전문적인 기량이 요구되는 일에는 극약과도 같은 말이다.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EBS의 현실이 웅변으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술한 교육전문 PD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에 격분해서 교육방송을 떠났다. 그 바람에 그간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EBS의 방송제작현장은 지금 찬바람이 불 정도로 쓸쓸하다.

방송을 만들어야 할 중견사원들이 떠나간 자리는 여간해서 메워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교육방송의 시청자들은 새학기 들어 갑자기 늘어난 외화프로그램을 어리둥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당장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방송시간을 메꾸기는 해야 하겠고 해서 교육지적으로 늘어난 것이 외화프로그램이다.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외국의 교육프로그램들이 대신하게 될 것인가? 세계화시대에 어쩌면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고 말한다면 더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차라리 우리말 방송을 그만 두고 외국의 교육방송을 그대로 방송하면 세계화교육에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교육방송은 돈벌이도 안되는 방송이니 때려치우고 돈되는 상업방송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의 교육방송 현실을 보면 사실 꼭 그 각본대로 되어가고 있다. 새로 생겨난 케이블TV로, 지역민방으로 그나마 많지 않은 교육방송의 전문적 제작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들은 십수년씩 자신의 젊음을 교육적 열정으로 불태웠던 순수한 사람들이었으며, 교육방송을 자신의 육신만큼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떠나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말이 없다. 지금까지 교육방송 사람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파업 한 번 해본 적 없고 오로지 좋은 교육방송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작비, 최소한의 작업공간, 최소한의 자존심을 유지할 만한 자율성을 달라고 그

렇게 호소했건만... 서로가 안타까운 눈길과 비통한 심정으로 굳은 악수를 나눌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한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을거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제대로 된 교육방송에서 세계제일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날밤을 함께 새우는 날이 오고야 말거야."

그렇다. 그 날은 올 것이다. 교육방송이 진정으로 필요하기에 온 국민이 왜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교육방송 하나 없느냐고, 시청료 천원 아깝지 않으니 교육방송공사 빨리 설립하라고 아우성을 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라도 스스로를 달래지 않으면 무엇을 바라고 세상을 살 것인가? 눈물을 감추며 교육방송을 떠나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은 이 나라의 참된 방송을 위해 머리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방송을 살리시다!" 외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조국의 장래를 위해 도움되고 자양분이 되는 프로그램 만드는 데만 온 힘을 다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고야 말 것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은 이렇게 독백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다.

임정훈(EBS 조사연구부)

교육 모임

— 교육방송 이렇게 서야 한다 —

교육방송의 앞날과 교육적 역할

현재 우리는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살고 있다. 3월이면 30여개의 CATV와 위성방송의 수를 합하면 영상매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영상매체들이 유익하고 건강한 방송인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 거의 모든 방송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시청률에 의한 경쟁을 하게되고, 그러면 유익함 보다는 오락지향적이고, 상업성 짙은 방송이 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입장에서는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그냥 넘길 수만은 없다.

공영방송을 부르짖고 있는 KBS조차 시청률을 의식해서 상업방송에서 하고 있는 게임 오락프로그램 '생방송 게임 천국'을 방영하여 안방까지 오락실화하고 있고, 드라마, 쇼 등 비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반면, 교육방송은 KBS의 1/20의 제작비와 인력의 부족함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의 정서를 잘 표현한 유일한 어린이 드라마 '언제나 푸른마음', 부모들의 자녀교육 방법인 '사랑의 교육학', 잔잔한 화면과 감동적인 만화영화 '프란디스의 개', '신밧드의 모험', 잠깐이나마 시간을 내어 장애아와 더불어 사는 마음을 길러

주는 프로그램 등, 기존의 타 방송에서 식상함을 느끼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공기같은 역할을 하여 고정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방송의 역할은, 시청률을 떠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전인교육, 평생교육의 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식을 선도하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중파로, 문화적 욕구와 의식의 질적향상을 바란다. 세계의 교육방송 현황을 살펴보면, 직·간접으로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공공의 통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기능은, 다양한 정보와 교양, 교육, 과학, 예술, 문화, 직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여론을 선도하고,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고 한다.

우리의 교육방송도 자라는 꿈나무를 위하고, 일반인들에게도 학교교육에서 배우지 못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의 자존심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법적 독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서말한 교육방송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장은숙 정리)

인터뷰

부산지부

조명숙 지부장을 찾아



부산지부장이며 학부모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명숙 씨를 만났다. 밖에 나가 일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오히려 보통 엄마들처럼 일일이 공부하는데 참견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며 학부모회일이 옳은 일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89년 5월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할 때 학부모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돈봉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학부모회를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당장의 성과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에

절망을 하면서도 이런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뜻을 가진 학부모 동지들을 만나면서 같은 뜻과 생각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정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산지부는 일반 회원들을 끌어 들일만한 프로그램이 없고 학부모회일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책임자를 발굴하지 못해 아쉽지만 임원들이 정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인원은 적지만 웬만한 행사는 치워낼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자랑한다.

올해의 사업으로는 교육위 참관단 발대식과 고교입시부활 반대 시민 여론작업, 어린이날 대회와 숲속학교, 역사기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부장으로서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95년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전국에서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학부모회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자발성에 역점을 두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교육당국이 학부모회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하는 일마다 제동을 걸고 나올 때, 가령 숲속학교 참가자 명단을 입수하여 참가한 학부모들을 회유, 협박했던 일과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광역시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6일간 열리는 한새학교를 통해 예비교사에게 학교의 경험을 살려주고 아이에게는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바람직한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학부모회를 알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요. 실제로 아이들,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었어요.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가 진실로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알게 해주었죠. 마지막 수업날에는 눈물바다를 이룰만큼 헤어짐을 섭섭해 했어요."

부산지역의 특성상 무조건적인 지역이기주의와 보수주의, 인적 물적자원과 문화적인 낙후로 인해 행사를 열려해도 인재가 없고 인식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김은주 기자)

❖ 서초동 중앙 문화 공간

국립 중앙 도서관 한 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에 3백개 공공도서관이 있다. 우리의 인구, 문화, 경제수준과 비교해 볼때 턱없이 모자라는 수이다. 그나마 현재 있는 도서관도 경영미숙, 전문인력과 자료의 부족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도서관 하면 학생, 특히 입시생들의 자습실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신정보 제공, 도서대출, 독서교실과 각종 취미교실운영, 음악, 미술, 영화상영등의 각종 문화행사 실시로 도서관의 기능과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종합문화공간인 것이다.

가까이 있는 도서관을 잘 이용한다면 주부들의 교양, 취미 활동의 해결은 물론 자녀들의 사교육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잦은 발길이 이어질때 양적, 질적으로 그 발전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봉사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안내와 활동상황, 역삼국립중앙도서관 분관 활동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활동

<열람봉사>

도서관봉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기본기능의 하나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자료를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봉사활동

<참고봉사>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위해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구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직원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봉사활동

<관외봉사>

지역사회의 모든 곳에 도서관 봉사가 미치지 못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외 봉사 활동

- * 이동도서관
- ┌ 대출문고
- └ 임해문고 등

<문화봉사>

도서관은 인포메이션 센터로서의 사명을 지닌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종합문화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전경

국립 중앙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은 우리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레크레이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 독서, 강습, 강연, 어린이집회, 영상, 음악회등 다양한 봉사활동

<어린이 봉사>

도서 및 도서관 이용지도 참고봉사, 독서지도 및 상담 열람 및 대출, 이야기회, 전시회, 음악회,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각종 집회, 독서회

* 여름·겨울독서교실

국립 중앙 도서관

강남구 서초동에 웅장하게 자리한 국립 중앙 도서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정보 제공의 장은 물론 휴식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1층 로비에 이용 상담실을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에 익숙치 못한 일반인에게 이용안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의 문턱을 한층 낮추었다.

이밖에 연속간행물실, 고전 운영실, 온라인 목록실, 비도서 자료실(종합전자, 정보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서관), 어문학 자료실 등이 있다.

1층 전시실에서는 그림, 글 모음전 등의 전시회가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국내 개봉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나, 도서관 주간(4.12~18), 독서의 달(9월)에는 거의 매일 또는 주2회로 집중 상영하기도 한다.

국립 중앙도서관의 각종 행사중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해 볼만한 프로그램이 있다.

'91년 부터 시작된 '도서관 문화학교'가 그것이다.

봄·가을 연2회 자녀 독서지도, 교양강좌 등의 내용으로 외부 초청 강사들의 강의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도서관 문화학교' 수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고, '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되는 신간 안내책자와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 안내 정보를 우편으로 무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컴퓨터 통신이 가능한 가정에서는 하이텔, 천리안을 통해서도 국립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료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아니라도 어린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한번 주말 나들이 장소로 택해 봄직한 곳이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이기도 하다.

도서관 옆으로 야산이 있어 봄이면 각종 꽃들의 전시장이며, 앞뜰의 조각품 감상, 본관과 별관 주변의 야외공간, 또 걸어서 20분 거리에 서초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가족나들이 코스로 훌륭하다. 평일에는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가지고 와 타기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는다면 무엇보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해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95년 도서관 문화 학교

<봄학기>

• 교양 : 현대미술과 여성, 자녀교육을 위한 엄마교육, 책과 인생, 문학과 삶, 문화재 이야기

• 독서지도 : 350명(봄학기 접수시작은 4월 10일부터이며 이를정도면 마감되므로 빨리 등록해야 한다.)
 • 독서지도 : 책읽는 즐거움을 자녀에게, 아이들의 글쓰기 지도, 창의력 개발을 위한 아동독서, 우리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권할까, 올바른 책읽기(바른 마음 가짐과 자세), 읽은 것은 어떻게 표현하나(독후 감상화),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하나(도서관 견학)

• 대상 : 미취학아동, 국민학교 1~3학년 학부모

95. 4. 18~5. 24(매주 화, 수요일 오전10시~12시)

<가을 학기>

• 교양 : 현대미술이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자녀의 심리세계),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 문학과 삶, 우리 문화재 이야기

• 독서지도 : 책읽는 가족 밝은 가정, 책 읽는 즐거움을 자녀에게, 읽기지도와 논술, 좋은 책은 어떻게 고르나, 올바른 책읽기, 읽은 것은 어떻게 표현하나, 도서관 이용.

• 대상 : 국민학교 4~6학년, 중학생 학부모

95. 9. 12~10. 24(매주 화, 수요일 오전10~12시)

회비 10,000원, 각학기 정원

350명(봄학기 접수시작은 4월 10일부터이며 이를정도면 마감되므로 빨리 등록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세 이상의 성인만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한다. (매월 2,4주 월요일 국경일 휴관, 전화 535-4142)

국립중앙도서관 역삼 분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자료가 풍부한 온가족을 위한 도서관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 가족열람실: 어린이와 주부 및 온가족이 함께 이용한다.

• 문화가족회원 자료실: 20세 이상 성인이면 회원자격이 있으며 가족중 한 사람만 가입하면 가족전체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이 되려면 주민등록 등본, 보호자 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된다.

• 독서클럽: 국민학생, 주부, 노인애 이르기까지 30개 가까운 독서클럽이 있다.

• 가정공공문고 지원: 어린이들이 도서관까지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도서관에서 매달 2백여권의 책을 가정에 지원해서 운영한다. 현재 10여곳의 가정에 설치하여 이웃과 함께 활용하고 있다

(매월 2,4주 월요일, 국경일 휴관, 전화 569-5637)

<송주비 기자>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도서 목록

◆ 3~4학년

연번	책 이름	지 은 이	출 판 사
1	꼬마 독재자(주제별동화선집①)	어린이도서연구회	오 늘
2	꿀떡해버린 꿀떡	손 춘 익	창작과비평사
3	나야 문치 도깨비야	서 화 숙	웅진출판
4	땅에 내린 별	장 문 식	아동문예사
5	모두가 깜짝 놀랄 짓을 한거야	에리카 릴레그 심양진 역	세진출판사
6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방정환 외	동쪽나라
7	소년한국역사	문 일 평	교 학 사
8	원숭이 꽃신(주제별동화선집②)	어린이도서연구회	오 늘
9	지구를 지키는 환경 콜롬보	우리누리	웅진출판사
10	춤추는 허수아비	이 준 연	현 암 사
11	하늘 끝 마을	조 성 자	대 원 사
12	호랑이도 살고 빛쟁이도 살고	손 춘 익	창작과비평사
13	황금말을 찾아서	서 성 원	동쪽나라

◆ 5~6학년

연번	책 이름	지 은 이	출 판 사
1	나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이 승	도서출판 새남
2	로봇의 눈물	홍 기	성바오로출판사
3	매기의 전설	제리 스피넬리, 김혜숙 역	지 경 사
4	북청에서 온 사자	강 원 회	금성출판사
5	신비해요 우리문화	김 은 영	지 양 사
6	아프리카 동화	릿파 아자리안, 존 커닝햄 저, 노재운 역	서 광 사
7	엄마와 분꽃	이 해 인	분도출판사
8	연변에서 온 이모	소 중 애	웅진출판
9	인도의 신화	S.R. 라오, 하진희 역	범 우 사
10	작아도 두렵지 않아	이 영 회	동아출판사

올해부터 1·2학년 제6차 교육과정 시행

교육과정 편성 학교 재량권 많아져

올해부터 국민학교 1,2학년은 제 6차 교육과정으로 바뀐다. (96년 3·4학년, 97년 5·6학년)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지난 해 전국 47개의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개편된 내용의 교과서와 교육내용을 가지고 실험 적용한 바 있다.

4차 교육과정에서 5차로 오면서 교과서 체제만 변화를 보였으나 6차 교육과정은 여러 면에서 발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우선 '주어진 것'이라는 개념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 체제가 큰 틀에서는 국가시책을 반영하고 학교단위에서는 행사위주로, 주입교사 중심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많이 주어져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편성이 가능해졌다.

5차때까지는 교육과정이 국가-시도교육청-학교 등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달식으로 편

성됐는데 6차에서는 그 수직의 틀도 어느 정도 깨지고 권한이 아래 단위로 많이 넘겨져 교사의 권한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연간시수와 주당시수가 있었는데 6차에서는 주당시수가 없어지고 학교에서 학기당 총 이수시간을 정해주면 학년별로, 학급별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고 교사 개개인이 진도에 맞는 시간표를 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목도 고정적인 시간으로 못박을 필요없이 과목별 흐름 속에서 교사가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지침으로 되어있는 교과과정운영위는 교장, 교감, 평교사는 물론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또 이 운영위에서는 연간지도, 시설운영, 자료활용계획 등 실제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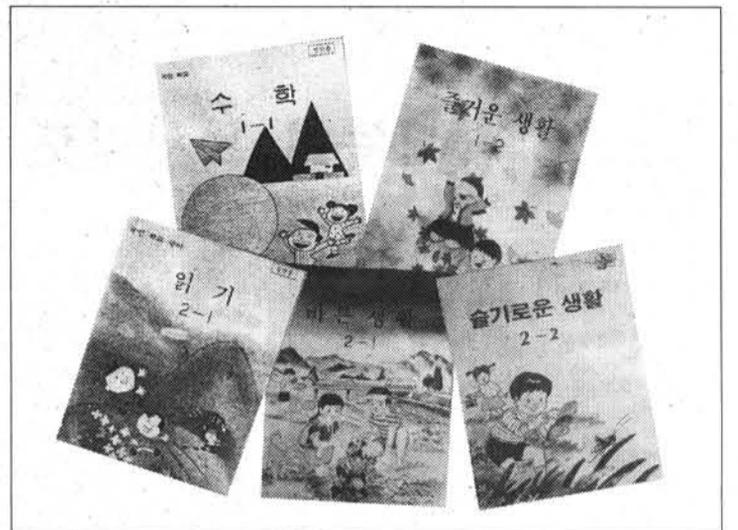
교과목은 <바른 생활>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5개 교과이며 교과서의 내용은 1,2학년 <슬기로운 생활>은 사회와 자연이 통합되고 도덕교과의 성격으로 <바른

생활>이 신설되었다. 또 <산수>가 <수학>으로 바뀐 것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특히 <바른 생활>은 아이들의 기본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전처럼 교실에서 '무엇을 하자'는 식이 아니라 직접 밖에 나가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한 번 이렇게 해보자'는 식, 즉 복도통행 예절 시간에는 복도에 나가서 해보고, 수돗물 사용은 수돗가에서 가르치는, 한 마디로 몸에 익혀보는 교육내용이 중점이 되어 있다. 학습수업 시수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 <바른생활>의 보조교과서이면서 실천활동을 기록하게 되어있는 <생활의 길잡이>는 1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국어>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읽기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

5차 때에는 교수모형이 도입-적용-발전이었는데 6차는 도입-원리-적용-발전으로 원리가 추가됐다. 예를 들면 설명문 단원을 배울 때 도입에서는 작은 재료를 주어 설명문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하고, 이 때 아이



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사가 주입식으로라도 설명을 해준다.

이는 쓰기, 말하기, 듣기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말하기, 듣기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아이들이 모르면 교사가 시범을 보여 알려주는 방식이다.

<산수>는 내용적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으나 명칭이 <수학>으로 바뀌었고, 사고력을 중시했고 암산을 도입하면서 학습분량도 많아졌다.

<슬기로운 생활>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통합한 형태로 통합교과이면서도 내용상으로는 통합교과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즐거운 생활>은 전과 마찬가지로 음악, 미술, 체육을 합친 통합교과로 전래동요와 비석치기, 투호놀이 등 전래 민속놀이가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조봉호 기자)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부산지부 알짜학교

부산대에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동안 알짜배기 학생들과 알짜배기 선생님들이 모여 학교 이름 그대로 "알짜 학교"를 함께 만들어갔다.

입학식날 모인 50여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의 눈에는 설레임이 가득 차 있었다. 설레임을 참때마냥 조잘거리며 표현하는 국민학생들과 달리 무게있게(?) 표현할 줄 아는 의젓함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입안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로 말이다. 입학식이 끝나고 학년별로 아이들은 자기 교실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다. 교실에 붙어 있는 시간표에는 수리, 과학, 가치, 국어 등 딱딱한 교과시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은 금세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여기에서도 수학, 국어 공부해요? 어휴~"

실수였다. 편의상 나누어본 교과 영역을 그대로 시간표에 옮겨 적어 놓았으니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아이들이 실망할 만도 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된 후 실망은 금세 흥겨움과 재미로 바뀌어갔다. 어렵고 지겹게만 여겨졌던 수학, 과학도 「야구게임」, 「마법의 편지」 「동전윷기기」등 새롭게 개발된 내용

으로 게임을 하며 그 원리를 찾아가니 쉽게 이해도 되고 즐겁기만 했다. 또 다른 과목인 가치, 국어도 마찬가지로였다. 아이들에게 단연코 인기였던 것은 동아리 활동이다. 연극반, 노래 몸짓반, 민속놀이반, 풍물 민요반등에서 모두들 기량을 자랑하며 열심히 놀았다.

24,25일 양일간의 짧은 교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끝내고 26일은 체육대회, 함께 밥 해먹으며 우정쌓기 등으로 알짜학교는 아쉬운 막을 내렸다.

교사로서 활동했던 사범대학 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행사라 한달 전부터 준비하고 직접 수업 리허설도 해보았지만 연습과 실전은 다른 것 같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보다는 또 다른 학생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예비교사들에게는 교사를 준비하는 실습장이며 산 경험의 장으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학교를 접하게 하는 장인 알짜학교를 내년에는 더 알차고 실속있는 학교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다짐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윤선희 부산)

박물관 순례 - (2)마사 박물관

기마 민족 오천년 역사 보존

오늘날 같이 교통 수단이 발달 되기 전에는 말이 중요한 수단으로 쓰였고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소중히 여겼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말을 관리 하는데 가장 힘썼는데 말의 수에 따라 목부를 두고 나라에서 관리하였다.

기계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부터 현재에 이르러 말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자연히 수요도 줄어 이제 경마장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말에 쓰이던 용구나 생활도구도 점차 주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기마 민족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그 기상을 떨쳐 왔는데 지나간 역사속으로 말 문화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우리의 것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 주자는데 뜻을 두고 마사 박물관을 세우게 되었다.

이 박물관은 경기도 과천시 주안동에 있는 서울 경마장 안에 있다.

123평의 아담한 단층 건물의 마사박물관에는 총 350여점의 유물들이 22개의 진열장에 전시되어있다.

유물들은 청동, 철기류, 목기류, 자기류, 토기류, 석기류, 피혁, 섬유 등의 품목으로 구분

되며 시대별로 진열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유물로는 경북 영천에서 출토된 철기시대의 청동제 말로서 성냥갑 크기로 앞 가슴과 꼬리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 목걸이로 꿰어 매달게 되어 있다.

또한 가장 눈에 띄는것은 신라시대의 말갖춤인데 신라시대의 사료를 근거로 하여 다시 만든 것이다. 경주 천마총 벽화를 보고 복원시킨 흉반이, 말방울, 발걸이, 재갈, 금도금한 안장가리개, 천마가 그려진 다래 등이 있다.

신라인의 뛰어난 예술성을 이런 섬세한 치장품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말 사육에 뛰어났던 낙랑시대의 목마와 마구, 조선시대에 여염집에서 사당에 물어놓고 복을 빌던 서툼솜씨의 흙, 돌이나 철로 만든 작은 말도 있다.

말 안장은 신분에 따라 재료나 형태를 달리 하였는데 나무에 형질이나 가죽을 씌웠으며 앞 부분을 나전칠기로 장식한 것도 있다. 상어가죽으로 장식한 어피 안장이 눈에 띈다.

말에 대한 책과 그림도 있는데 조선시대의 이서 선생이 중국책을 번역한 「마경언해」 상·하권은 좋은 말 고르는법, 말 치료법등 말에 대한 지식이 말

그림과 함께 한글로 목판 인쇄되어 있다.

말 그림으로는 고려시대 공민왕이 그린 '출렵도'가 있다.

이외에 임금이 행차할때 쓰이던 의장용기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에게 임금이 손수 술을 따라주던 마상배, 말 양옆에 매달던 행랑과 길마 등이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마굿간이나 말 몸에 붙여 무병을 빌던 부적, 악을 막이던 도구인 약질이, 상여를 장식하던 목각형 말탄 저승사자가 있다.

조선시대에 말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조선 헌종 15년에 전국목장 분포도가 그려진 지도가 있다.

공무원 신분증으로 쓰이던 마패도 있는데 말을 새겨 넣은 말의 수에 따라 신분표시가 되었다.

우리 민족의 실생활은 물론 신앙의 매개로도 말을 이용했던 역사적 사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이 박물관은 기마민족의 오천년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긍지를 갖게 해 준다.

과천 경마장에 오면 언제나 무료로 관람 할 수 있으며 근처에 있는 서울대공원과 현대 미술관도 들릴 수 있다.

(김해순 기자)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들의 독서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나는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었다. 내가 처음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된 동기는 옆집 오빠의 만화책이었다. 만화책에 재미를 붙여 읽다보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도 모르게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책이라고는 동네에서 어렵게 구한 한두 권이 고작이어서 많은 책을 갖고 싶다는 욕심은 어려서부터 대단했다.

어른이 되어 생각하니 그 당시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지 못한 것이라든지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지 못한 점들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는 좋은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덕분에 다행히 아이들은 책읽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어려서는 유명 출판사의 책을 나름대로 한권 한권 검토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요구가 다양해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종류의 책을 일일이 구하기가 힘이 들어 동네 책방에서 책을 빌려다 읽고 있다. 하지만 고전보다는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책들이 많아서 참으로 조심스럽다. 요즘처럼 새로운 책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때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도록 권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주로 고전들을 읽히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학교공부나 숙제에

밀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휴일이나 방학 때만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곤 한다. 처음 서점에 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다. 호기심으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무척이나 기뻐했다. 어떤 보물을 보고서도 것처럼 좋아할까? 지금도 서점에 가면 만화책, 동화책, 고전문학, 어린이 철학책 등 다양한 책들을 몇 시간씩 서서 읽곤 한다. 가끔 아이들 아빠가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사다 주는데 특히 만화책을 좋아한다. 역시 서점에 가도 만화책에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모양이다. 요즘에는 국적도 불투명하고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은 만화책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만화책 읽히기가 조심스럽다. 내 어릴 때의 경험으로 만화책을 허용해주지만 좋은 만화를 골라 읽는 데는 역시 애로가 있다.

그리고 서점에서 몇 시간씩 서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서점에서 책읽기를 매우 좋아한다. 또한 서점문을 나서면서 한두 권의 책을 사오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기쁨인 모양이다. 요즘에는 내가 동행하지 않아도 동생과 둘이서 서점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 심심해도 서점에 가고 새로운 책이 읽고 싶어도 서점에 간다. 아이들이 책읽기를 좋아하는 습관은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김순덕(전북 이리시 어양동)

선생님께 이렇게 했다.

각년 처음 아이를 국민학교에 입학 시키면서 많은 걱정을 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아이가 입학하고 나서 돈을 얼마 넣어 주느냐가, 서너명의 엄마들이 모였을 때 관심사였다.

그러나 나는 참교육에 나가고 많은 것을 듣고 배웠기에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입학을 하고 삼사일이 지나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만나서 반갑고 우리아이의 성격은 어떻게 내가 집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언제 찾아가면 바쁜 시간을 피해서 만날 수 있느냐고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약속했다. 이웃어른을 찾아 봐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알고 있어 집에서 짠 참기름과 마늘을 조금 가져갔다. 살림하는 여선생님이라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편지를 보냈기에 서떡하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집안얘기, 우리 집 얘기 등.

그리고 가끔씩은 아이의 간식을 싸 주면서 선생님것도 챙겨 주었다. 선생님은 가정연락부에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고 적어 주었다. 학교 주변에 불일이 있으면 생선 몇마리 사들고 선생님을 방문했다. 그러면 아이의 장점과 단점도 알수 있었다. 가끔은 참교육신문도 보내드렸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녁시간에 직접 집으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입학년이 끝나간다. 그동안 많은 것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 섭섭함을 느낀다. 나는 결코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내아이를 특별히 잘 봐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자부한다. 다만 고맙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도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아이는 반쪽인간이 되지 않을까싶다.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간다고 하니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찾아가 봐야겠다.

채선영(경북 경산군 압량면)

교육위원회 참관단 모집

참교육 학부모회는 전국 각 지역에서 매달 열리는 교육위원회에 참가하여 교육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참관사업을 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학부모회가 실질적인 압력단체로 일해 나갈수 있도록 학부모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634-6508

새내기 학부모의 소감

며칠전 딸아이가 종업식을 했다. 국민학교에서 처음으로 보낸 1년이였다. 그 전에선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선생님이 타학교로 전근을 가신다고 해서 같은 반 어머니와 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동안 고맙웠어요. 마음 편하게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 말씀이었다.

사실 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걱정이 되었다. 우리동네학교는 '치맛바람'이 드세기로 소문이 났다는데, 그 '치맛바람' 일으킬 치마도 없으려니와 그렇다고 바람직한 학부모상에 대해 우리는 들어본 적도 교육받은 적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여기저기 책자를 뒤적거리다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 회보를 받아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었다.

아이가 입학하고 두어달쯤 되었는가? 유치원같으면 입학 후 한달이 지나면 학부모상담이라고 해서 아이의 유치원생활에 대해 궁금증이라도 풀 수 있었는데 학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지만, 다른 환경이라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첫아이라 학교환경도 알 수가 없어서 선생님을 찾아 뵈었다.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또 학급경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여쭙봤다. 선생님 말씀이 50명 학생중에 1학년들은 특히나 준비물을 못 갖춘 아이가 10명만 되어도 수업이 안된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다.

1학년을 맡다보면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몇번 얘기하고 야단도 치지만, 1학년 준비물은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아이만 야단할 수 없어서 집으로 전화를 해 얘기를 하면, 꼭 마지막에 "선생님, 한번 찾아뵈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때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몇번 그런 일 겪은 뒤로는 일절 전화는 안하기로 했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시니까 참 좋다고, 꼭 해주시고 싶으면 공책이나 사 주세요.라며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이 고마웠다.

내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 아이들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데, 그 길로 문방구에 가서 공책이랑 준비물에 잘 들어가는 색종이, 풀 등을 부담되지 않은 정도로만 사서 보내드렸다. 그리고 격주로 돌아오는 청소에는 가능하면 참석을 했다.

우리학교는 유난히 휴먼지가 많이 난다. 거기다 분필가루, 아이들 장난에 날리는 먼지, 기관지가 약하신 선생님은 목이 잘 잡혔다. 팬시점에 들렀다가 분필을 종이로 싸서 판서를 하신다는 아이말이 생각이나서 분필끼워쓰는 용기를 사드린 적이 있었다. 스승의 날에는 몹시 고민하다가 도서상품권을 드렸다.

가을에는 운동회가 있었다. 한 학부모가 선생님 점심값이라고 돈을 거뒀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냈다. 선생님한테 몹시 꾸중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한번은 이런 얘길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협조를 구하는 전달사항중에 비용이 드는 경우, 꼭 해야할 일이 아니면 그냥 넘긴다고 했다. 당신도 살림사는 주부인데 일이만원이라도 주부한테는 쉽지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1학년 청소는 어머니들이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청소 끝나고 나오는 걸레는 비누로도 안 지워질 경우가 많았다. 그 걸레를 꼭 집에 들고가서 하얗게 빨아오는 어머니가 계셨다. 작은 마음 씀씀이지만 선생님은 고마워하셨다.

종업식날 만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전하면 마음으로 받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거든요." 우리반 어머니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들을 잘 이끌어 주신 덕택입니다. 거절하실 것은 거절하시고, 받아도 될 사안은 받으시고 요구하셔서 저흰 따른것 뿐인걸요." 같이 갔던 학부모와 난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좋은 선생님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쪽에 우리집이 있어요. 지나는 길이면 한번 놀러오세요." 선생님의 손을 덥씩 잡았다. 따스한 체온이 전해왔다.

새내기 학부모 1년. 못난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지난해의 결점을 거울삼아 선생님께 배운대로 보다 바로선 학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김미성(부천시 고강동)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㉔

반영적 경청법 - 격앙된 감정 완화시켜

사람은 때로 자기의 속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곧바로 표현하지 않거나 못하고 돌려서 나타내고는 합니다. 따라서 들어주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이런 잠재된 감정을 끄집어 내어 확인해서 돌려주는 경청을 반영적 경청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섯살 된 딸 아이가 놀다 울면서 들어옵니다.

아이 : "엄마, 무릎에서 피가 나요."

엄마 : "저런, 피가 나니까 겁이 나는가 보구나."

이 아이는 무릎을 다쳐 아픈 것보다는 피가 나는 걸 보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엄마가 아이의 이런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끄집어 내어 되돌려 주면 아이는 자신의 그런 감정을 확인 받았다는 느낌에 안도감과 함께 감정이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응, 엄마 피가 나서 무서웠는데 별로 많이 만나니까 괜찮아." 하면서 기분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도식으로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참조>

위 도표를 풀어보면 반영적 경청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말, 행동, 신체적 언어로 문제가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2. 부모는 관찰할 수 있는 단서를 해독하고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정말인지 점검하도록 자녀에게 느낌이나 생각을 되돌려 준다. (feedback)
3. 자녀는 부모의 feedback를 긍정하여 계속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거나 feedback를 부정하여 좀 더 확실한 암호를 보내고자 한다.

우리 부모들은 여태까지 일방

적인 훈계나 설교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반영적 경청법이 금방 자녀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대화에서 응용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문을 읽고 반영적 경청법으로 답한 것은 어느 것인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엄마, 나두 동생처럼 감기 걸렸으면 좋겠어.

엄마: 1. 너도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2. 동생만 보살피니 네가 버려졌다고 느껴지나 보구나.

3. 동생이 부러운가 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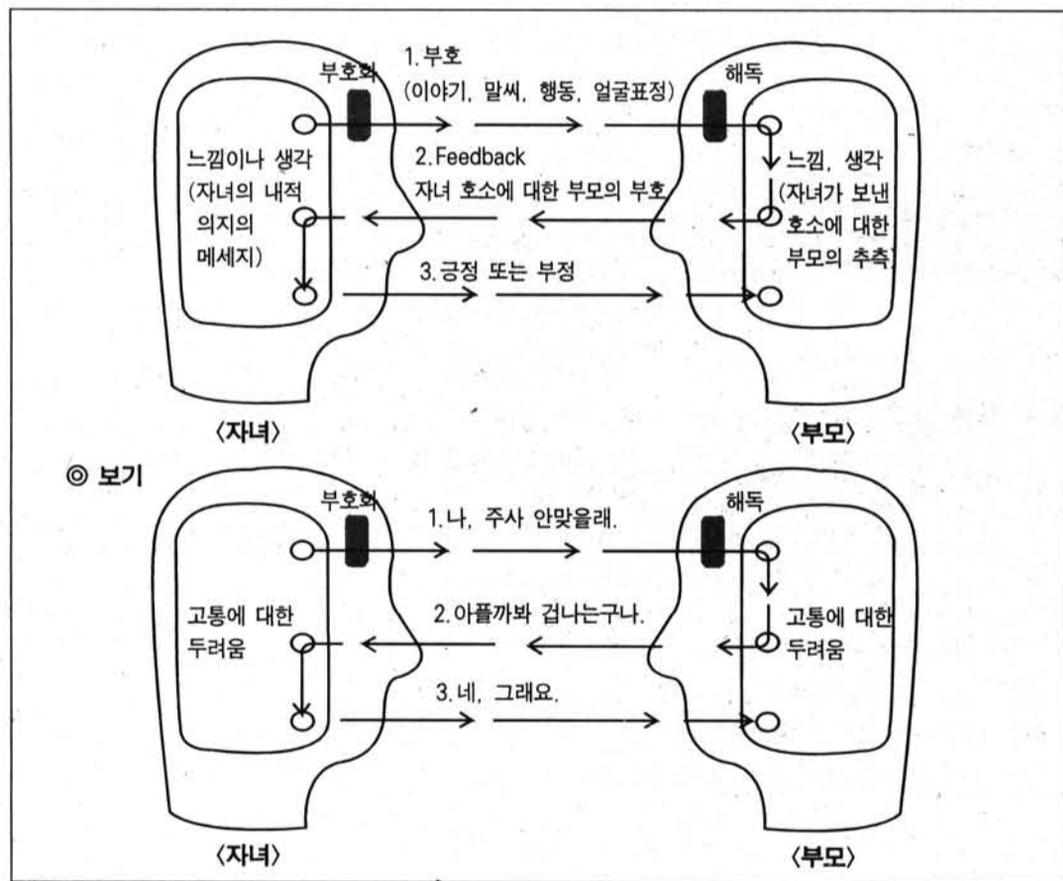
자녀: 아버지가 화를 낼 때는 숨어버리고 싶어요.

엄마: 1. 아버지가 화를 낼 때 많이 무서웠구나.

2. 아버지가 미워졌구나.

3. 아버지가 화를 내시니까 속 상했구나.

<이정진 기자>



미래의 유망직업 (8)

해외관광여행 기획자

관광기획자는 여행사에 소속되어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상품프로듀서가 따로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진행과 기획을 함께 하고 있다.

관광기획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상담을 받고 10~15명 정도의 단체가 꾸러지면 이들이 출국해서 돌아올때까지 책임을 진다. 항공사 스케줄을 근간으로 2달쯤 전에 코스를 기획하면 직접 가서 사전답사를 하여 코스를 확정짓고 호텔 식당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결정한다.

이들은 1년에 8~10번 정도 해외여행을 하는데 대개 1번 떠나면 4~8일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관광사업 중점 육성방침에 따라 해외관광객수가 매년 30%씩 늘어나는 추세다. 88년 해외여행자율화 이후 관광여행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국내의 지사를 포함하여 2500여개의 여행사가 있다.

이들 여행사에는 대기업 산하의 코오롱, 한진, 롯데, 세방, 한주여행사와 기타 일반여행사가 있다. 대기업 산하의 큰 여행사는 임직원이 200여명 이상 되는 곳도 많은데 이런 큰 여행사는 전체의 3.3%정도다. 또 임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곳은 아주, 서울, 동방등 23개사로 9.3%를 차지한다. 임직원이 50명 이상인 곳은 52개사로 전체의 21%다.

관광 진흥법에 따르면 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교통부에 신고하면 관광여행사를 차릴수 있기 때문에 관광통영가이드 없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직원이 2000명 이상이나 되는 일본 여행업체에 비하면 무척 영세한 편에 속한다.

이들업체에서 관광기획자는 보통 해외여행부 산하 상품기획부에서 근무하는데 40~50명 정도가 일하는 규모의 여행사라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4~5명정도다.

이들의 보수는 경력 2~3년에 월 60~70만원, 여기에 팀과 출장비를 합하면 월 100만원의 수입이 가능하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관광 전문인력이 많지 않으나 관광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 때문에 꾸준히 관광 관련학과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여행이 가능한 나라가 구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으로 넓혀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어학전공자라면 도전이 쉽다.

관광기획자는 외부와의 교류 업무가 많기때문에 활동적이고 말주변이 좋아야한다. 외국어 능력 역시 필수적이다. 현재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고 남녀차별이 적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기획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스케줄을 작성하는 능력과 2년마다 바뀌는 각 항공사의 비행기 노선, 시간, 요금등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항공사와 좋은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성격상 융통성도 필요하다. 여행을 좋아하는 전문대졸 이상의 관광관련학과 전공자나, 어학전공자는 한번 도전해볼만한 직업이다.

현재 관광기획자를 공채하는 여행사는 몇개 없고 대부분 결원이 생겼을 경우 수시로 학교 추천이나 인맥을 통해 특채하는 형식이다. 이 직업은 관광 상품 기획과 관광 안내를 겸하기 때문에 회화능력과 용모가 단정하면 유리하다. 관광관련학과나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학교의 추천이나 인맥 혹은 공채를 통해 입사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여행은 이제 더 이상 호화여행이 아니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신흥여행, 어학연수, 심지순례, 계모임, 배낭여행 등으로 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여행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 할 전문가 역시 더욱 필요해질 전망이다.

<배명희 기자>

환 / 경 / 동 / 화

미나마따의 붉은바다

이 책의 총판매액 중 10%는 미나마따와 동일한 병인 '온산병' 연구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어린이 환경교육, 환경동화로 쉽게 다가갑시다.

아이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다구요? 무조건 실천만 강조해서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동화의 주인공인 미나마따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렵고 밋밋한 느껴지는 어린이 환경교육, 환경동화로 시작하세요.

이 책은 실제 미나마따 병을 30여년간 치료한 의사가 직접 쓴 동화로 깨끗한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최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 주는 녹색평화의 소망을 가득 담은 책입니다. 최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우리교육 전화 730-1527(출판부) 730-1273(영업부)



학부모, 자녀 위한 3월 행사 안내

월례회

서울지부

◆ 중서부지회

·일시: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문의: 634-6508

◆ 판악 동작 서초지회

·주제: 1. 올해 들어 달라지는 학교교육 (6차 교육과정 개편)
2. 바람직한 학교참여에 대하여-사례를 중심으로
3. 새학기를 맞은 자녀의 학습 지도와 생활지도-사례를 중심으로

로

일시: 3월 15일 오전 10시~12시
장소: 방배동 청소년 학회세미나실
문의: 634-6508

◆ 강서남지회

·강좌: 종이접기 (강사: 최영란)
·주제: 꽃다발을 만들어 봅시다.
·일시: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문의: 634-6508

마창지회

·일시: 3월 16일 오후 2시
·장소: 사무실

지회소식

서울지부

·주제: 통일 교육에 대하여 (강사: 심성구)
·일시: 3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문의: 634-6508

◆ 강서남지회

·내용: 신입회원 환영회 및 피부관리 강좌
·대상: 94년 10월 ~ 95년 3월에 가입한 회원과 관심있는 사람
·일시: 3월 30일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문의: 634-6508

◆ 동북부지회

“교육계 현황과 학부모 운동”
일시: 3월 20일 예정
장소: 노원 뉴스 세미나실 예정
문의: 634-6508

부산지부

고교입시부활반대 공청회 “고교입시부활 과연 바람직한가”
·일시: 3월 17일 오후 6시 30분
·장소: 부산일보 소강당
·문의: (051) 247-1795

마창지회

“엄마와 함께하는 숙제기 대회”
·일시: 3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중리

인천지부

87주기 3.8 여성의 날 기념 여성한마당
·일시: 3월 11일 오후 2시~4시
·장소: 부평 여성회관
·발제주제: 고교입시부활 반대 입장발표

·문의: (032) 572-3410

이리지회

열린자리

·내용: 1. 신입회원 교육
2. 선생님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일시: 3월 8일 오전 10시
·내용: 새학기 새친구 사귀기 어떻게 도울까?
·일시: 3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문의: (0653) 856-0340

전주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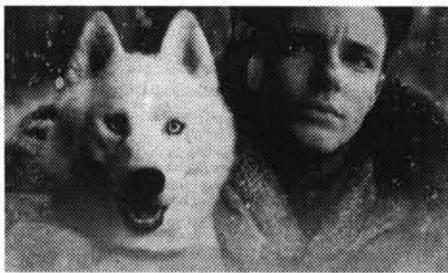
무궁해 비누 만들기-주 1회 제작

열린자리

·내용: “교육의 평등화” (강사: 김천기 교수)
·일시: 3월 8일 오전 10시
·내용: 독서토론이나 나물캐기 (미정)
·일시: 3월 15일 오전 10시
·내용: 분반토론-유아반 (좋은 버릇 기르기)
초등반 (학교 문제)
·일시: 3월 22일 오전 10시
·내용: 환경실습-분리수거통 만들기
·일시: 3월 29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참관사업
“95년 정기 정책질의”
·일시: 3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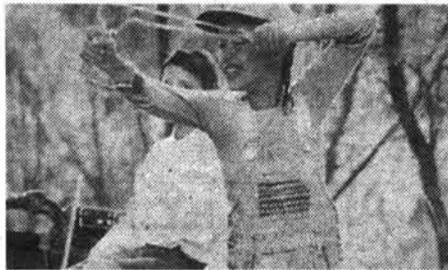
가족이 함께 볼만한 비디오

■ 늑대개2



감독: 찰스 해이드
주연: 맥 캔지 어스턴, 케빈 스페이시
1917년,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재해가 집안을 덮치고 얼음이 덮인 강에서 그의 아버지가 변을 당하기 전까지 젊은 윌 스톤 캔의 미래는 밝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 가족과 농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에게 돌아가고 미네소타의 시골 마을을 떠나 도회지로 대학을 가려는 그의 꿈은 산산히 부서진다. 갑자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선 윌은,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상금이 걸려있는 눈썰매경주 크로스 컨트리 경주에 승부를 건다.

■ 양키줄루



감독: 그레이 호프메이어
주연: 레온 슈스터, 존 마쉬키자
아프리카 초원을 무대로 한 코미디. 흑인 소년 줄루와 백인소년 라이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알아주는

악동 콤피.

25년이 흐른 뒤 줄루는 미국에서 자동차 절도범이 되어 감옥생활을 하고, 라이노는 딸 텅키와 함께 밀렵꾼들을 골탕먹이며 살아간다. 그런 어느날 줄루는 고향 남아프리카공화국서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호송되던 도중 악명높은 인종차별주의자 다이하드의 복권을 빼앗아 탈출, 라이노와 재회한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1회 한국 여성 대회 남녀 유권자 한마당

일시: 3월 12일(일) 오후 2시~5시 (야외 행사와 그림 전시회는 1시부터)
장소: 이화여자 대학교 대강당
주최: 한국 여성단체연합 (274-2883, 279-6891)
목적: 6월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석 20%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 기금마련 행사

〈 바로잡습니다 〉

- 42, 43호 7면 이정진 P.E.T 강사를 이정진 기자로 바로잡습니다.
- 43호 7면 인터뷰 마창지회장 사진이 잘못 실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 ·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현 덕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 76권은 그 동안 서울 YMCA · 서울 YWCA · 문화체육부 · 어린이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마산 YWCA · 좋은 책 만들기운동 연합회 · 창원 YWCA · 군산 YMCA · 어린이 문화 진흥회 · 마산 YWCA ·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있는 책입니다.

도시 출판 산하

121-012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전화 392-7641 팩스 313-2582

▶ 생애이야기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차들이는 환경박사 김현아
- 16 나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8 공부 왜 해야 하는 한 교실 어린이
-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 · 동화
-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5 남보다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6 민요기행 신경림
-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 51 천연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74 짚구 우리 익기 배워보세 신경식
- ▶ 과학이야기
-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 · 2 · 3 유한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 · 2 오창영
- 62 끈질기게 물고 놀러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4 약학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 역사이야기
-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 3 4 5 임궏정과 일곱형제들 1 · 2 · 3 김우일

-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래
-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박봉기
- 52 53 꼬마 단군 1 · 2 정우상
-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홍이 1 · 2 · 3 김정민
- 68 알씨구 국악이야기 들어보세 김태균
- ▶ 인물이야기
- 7 전태일 위기철
- 33 윤동주 청진구
- 49 신채호 김서경
-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 장작동화

-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 9 하늘의 눈을 권정생
-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 14 바보와 바보 박상규
-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 19 딸꼬마이 이상권
- 20 허투나라 허투랑 이준연
-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 23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 유재용 · 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식
- 25 회초리와 훈장 윤기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 27 아기 장수 조호상
-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 30 섬마을 아이들 신승행
-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46 작다고 깔보다 큰코 다치요 이재복

-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48 김형지의 매주콩 이재복
-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 55 사장이 된 풀뿔장수 박상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 57 하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 · 2 오봉우
- 69 느름글 아이들 임길택
- 70 71 큰소나무 1 · 2 강정규
- 75 개비 개비 참도개비 김중대
- 76 흰둥이와 검둥이 이오덕 · 권정생 외

산하어린이가 100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 새 나온 책

산하어린이 · 75
개비 개비 참도개비

도개비 박사 김중대 선생님이 들려 주는 토종 도개비 이야기
를 달린 일본 도개비 '오니'가 우리 도개비로 둔갑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 토종 도개비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알려 주는 도개비 이야기.
김중대 글/신재원 그림/값 4,000원